행정안전부	보도자료	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(온라인)2024. 10. 31.(목)12:00
(지 면)2024. 11. 1.(금) 조간

칭찬과 소통, 일·가정 양립으로 도약하는 행정안전부 조직문화

- 매월 직원이 칭찬하고 싶은 동료를 직접 추천·투표해 선정
- 풍수해 예방·대응부터 '다행이' 개발까지,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 낸 우수 직원 선정
- '제2회 다행포럼'에서 일·가정 양립 논의를 통해 조직문화 개선에 지속 노력

□ 행정안전부(장관 이상민)는 매달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거나, 조직 화합 등에서 귀감이 되는 직원을 '이달의 행안인'으로 선정하고 있다.

○ 동료직원의 추천을 받아 직원 투표를 통해 매월 1명씩 행안인을 선정하며, 선정된 직원에게는 포상휴가가 지급된다.

○ '이달의 행안인'은 행정안전부에 근무한다는 자긍심을 높이고, 직원들이 서로 칭찬하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아이디어로 지난 7월부터 시작되었다. 제1호 행안인은 '행바시', '보고서 새싹반' 등 다양한 직원 소통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윤민지 주무관이 선정된 바 있다.

※ '행바시'(행정안전부를 바꾸는 시간)는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지식·경험을 공유하는 소통 모임
'보고서 새싹반'은 매주 1회 점심시간에 모임을 갖고 보고서 작성법을 100일간 연습함

□ 11월 1일(금) 개최된 이달의 행안인 시상식에서는 8월부터 10월까지 이달의 행안인으로 뽑힌 세명의 직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. 자연재난 대응,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, 행정안전부 캐릭터 '다행이' 개발 등 묵묵히 각자의 업무에서 노력하고 성과를 낸 점이 추천 사유로 꼽혔다.

○ 8월 행안인으로 선정된 김준하 사무관은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 대비 추진 지침을 마련하고 여름철 호우, 태풍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등 인명 피해 최소화에 기여했다.

- 김 사무관은 "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큰 보람을 느꼈다. 동료 직원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린다"고 소감을 밝혔다.

○ 9월 행안인 오현문 사무관은 행정안전부가 중앙동 청사로 이전한 이후 새로운 사무실 환경에 적응하는 직원들의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챙기며, 동료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.

- 오 사무관은 “모두가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서 기뻤다. 앞으로도 더 나은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○ 10월 행안인 이은주 주무관은 행정안전부의 마스코트인 디지털소통 캐릭터 ‘다행이와 부리부리’를 만들어 국민에게 행정안전부의 다양한 정책을 쉽고 재미나게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.

- 이 주무관은 “다행이와 부리부리가 국민께 즐거움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캐릭터로 성장해서 기쁘다. 앞으로도 값진 소통을 이어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□ 이달의 행안인은 조직 내에서 새로운 칭찬과 소통 문화를 활성화시켜 직원들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.

○ 10월의 행안인을 추천한 최영선 과장은 “직원이 투표 과정을 통해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업무에 대한 자긍심도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 추천했다.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앞으로도 박수받는 기회가 더 많이 있기를 바란다”고 밝혔다.

□ 한편, 이상민 장관은 최근 반등하고 있는 출산율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이날 ‘일·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방안’을 주제로 ‘제2회 다행포럼’을 개최했다.

※ 다행포럼은 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소통과 협력을 활성화하는 소통·토론 플랫폼으로, 제1회 포럼은 7월 24일 ‘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만들기’를 주제로 개최함

○ 가을을 맞아 야외에서 도시락 오찬 간담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자녀를 양육 중이거나 출산 예정인 직원 20여 명이 참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.

○ 포럼에 참석한 A사무관은 “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했을 때 그동안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주변 인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. 육아휴직 후 복직할 때 조직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”고 말했다.

○ B주무관은 “아이가 어린이집에 장기간 등원하지 못할 때 휴가를 연달아 쓰기가 어려워서 아이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.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를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”고 말했다.

□ 이상민 장관은 “행정안전부는 일·가정의 양립을 위해 지난해 선도적으로 ‘연가 및 유연근무 자기결재’ 제도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, 오늘 직원들의 의견을 들으니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다”며,

○ “직원들이 맘 편히 아이를 양육하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과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	책임자	과 장	김성일 (044-205-1461)
		담당자	사무관	이원영 (044-205-147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